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어랑천발전소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어랑천발전소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1981년 6월 5일 어랑천발전소를 건설할때 대하여 주신 교시에 따라 건설을 시작한 어랑천상류에 언제식으로 3호와 4호발전소를 건설하고 그아래에 팔향언제를 쌓아 물길식으로 1호, 2호, 5호발전소를 건설하게 되어 있으며 총발전능력은 13만 4, 000kW로 계획되어있다.



적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는 팔향언제건설에서 걸린 문제들을 료해하시고 지금처럼 내각에 맡겨놓아서는 대가 바뀌어도 결말을 보지 못할것 같다고 하시면서 당중앙위원회가 전체 당조직들과 당원들을 총발동하여 언제건설뿐 아니라 어랑천발전소건설을 틀어쥐고 조직지도하여 다음해 10월 10일까지 공사를 완공할데 대한 혁명적인 대책을 세워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는 수력발전소건설력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는 미중환 일군들에게 수고가 많다고 인사를 나누시며 어랑천발전소를 건설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가 계신 때로부터 30여년이 지나도록 공사가 완공되지 못하고있는 실태를 현지에서 직접 료해대책하기 위하여 왔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는 먼저 팔향언제건설장을 돌아보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는 언제건설

을 시작한지 17년이 되어오도록 총공사량의 70%밖에 진행하지 못한데 대하여 지적하시면서 공사가 진척되지 못하고있는 원인을 료해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는 내각의 책임일군들이 팔향언제건설장에 최근 몇해어간 한번도 나와보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대단히 격노하시어 도대체 발전소건설을 하자는 사람들이 말자는 사람들인지 모르겠다

고, 건설현장에 로력과 자재가 보장되지 않아 건설이 중단되다싶이 되었는데 왜 이 지경이 되도록 내각이 대책하지 않는지 알수가 없다고, 현장에 나와보지 않으니 실태를 알수 없고 실태를 모르니 대책을 세울수가 없는것은 당연하다고, 내각에서 몇년째 어랑천발전소건설을 다그쳐 끝내기 위한 결정적대책을 반영한 보고서가 없기때문에 벼르고벼르다 오늘 직접 나와보았는데 말이 안 나온다고

말씀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간곡한 유훈이고 나라의 전력생산장성에 크게 이바지할 중요한 문제를 관심하지 않고있는것을 보면 내각이 국가경제사업의 중심을 바로 쥐지 못하고있다고, 중요대상건설을 과학적인 타산과 구체적인 계획밑에 력량을 집중하여 조직진행하지 않고 건설력량과 설비들을 분산시켜놓고 좌왕우왕하고있다고 지

의 기성관례를 깨뜨리며 백두산아래에서 영웅신화를 창조한 그 기세, 그 기백으로 어랑천발전소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끝냄으로써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관철하고 함경북도의 경제사업과 인민생활향상에서 대단히 중요한 전력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는 이어 어랑천5호발전소를 돌아보시었다.

( 2 면 으 로 계 속 )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어랑천발전소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1 면에서 계속)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어랑천5호 발전소에 설치한 발전설비를 보시면서 힘들게 발전소를 건설해놓고 전력을 능력대로 생산하지 못하면 안 된다고 하시면서 효율이 높고 현대적인 발전설비들을 설치하고 만가동,

민부하를 보장하여 전력생산을 끊임 없이 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전력공업은 인민경제의 생명선이며 심장과도 같다고 하시면서 어랑천발전소 건설을 전담적으로, 전국각적으로 힘을 넣어 해제껴야 한다고 다시금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어랑천발전소건설자들이 국가사정이 어려운 조건에서도 누가 알아주진말건 순결한 량심을 묻으며 지금까지 많은 일을 하였다고, 당정책관철을 위해 위훈의 구슬땀을 바쳐온 건설자들의 고결한

충정과 무궁무진한 힘에 의해 발전소 언제가 쌓아지고있다고 하시면서 온 나라가 어랑천발전소건설자들과 호흡을 같이하며 총돌격전에 과감히 떨쳐 나서자고 열렬히 호소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피땀은 전투적 호소를 받아안은 건설자들은 당중앙

의 령도따라 불굴의 정신력과 영웅적인 결사전으로 어랑천발전소건설을 당에서 제시한 기일안에 훌륭히 완공함으로써 어머니당에 자랑스런 충정의 보고를 드릴 불같은 결의를 다지였다.

본사기자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인민군 제810군부대산하 락산바다련어양어사업소와 석막대서양련어종어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인민군 제810군부대산하 락산바다련어양어사업소와 석막대서양련어종어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락산바다련어양어사업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동해의 락산만에 위치한 락산바다련어양어사업소는 굴지의 련어생산기지로서 우리 나라 동해에서의 첫 대서양련어바다양어에 성공한데 이어 그 성과를 공고히 하고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혁명사적교양실과 그물우리양어장을 돌아보시면서 락산바다련어양어사업소의 생산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축산과 마



찬가지로 양어장들에서도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며 위생방역체계를 철저히 세워야 한다고 하시면서 락산만

로 흘러드는 하천들과 공장, 기업소 퇴수구들에 10여개의 침전장들을 새로 설치하고 그물우리주변에 미역,

다시마양식장을 꾸려 바다물오염을 막고 생태환경을 보호하고있는데 대하여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련어양어에서 특히 수질관리를 과학화하는 사업이 중요한것만큼 양어장을 꾸린 수역의 물온도와 산소량 등을 검측할수 있는 종합수질측정기재를 설치하고 수질검사를 정상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련어가공품생산의 과학화, 자동화, 현대화수준을 높이고 위생안전성과 품질을 철저히 담보하며 규격화, 표준화를 실현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우리 나라 동해바다에서 양어한 대서양련어와 가공품들을 평양대동강수산물식당에 집중적으로 보내주어 인민들의 식락을 더욱 풍성하게 해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3 면으로 계속)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인민군 제810군부대산하 락산바다련어양어사업소와 석막대서양련어종어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 2 면 에서 계속 )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석막대서양련어종어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석막대서양련어종어장은 련어알 깨우기와 새끼고기기르기를 진행하여 락산바다련어양어사업소에 보내주는 종어기지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혁명사적교양실과 야외양어못을 비롯한 종어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관리운영과 경영활동을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석막대서양련어종어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2015년 5월현지지도과업을 높이 받들고 지난 3년동안 종어장을 높은 수준에서 현대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많은 일을 해놓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였다.

혁명사적교양실을 정중히 꾸리였으며 컴퓨터에 의한 물재순환자동조제계를 확립하고 산소발생장, 침강정, 자외선소독실을 새로 건설하여 련어양어에서 걸리고있던 수질소독 및 산소포화능력을 높일수 있게 하였으며 새끼련어의 사육률을 높이기 위하여 현대적인 비육장을 위생방역적으로 개진하고 6개의 실내호동들에 있는 54개의 콩크리트양어못들을 수지양어못으로 개조하였을뿐아니라 퇴수처리문제도 해결하여 물고기폐사률을 결정적으로 줄일수 있게 하였으며 초미분쇄장, 평화사료공장, 1, 000t급사료창고를 새로 건설하고 병균을 막는 익생균에 의한 사료생산체계를 세워놓는데 대하여 치하시였다.

특히 새끼련어들의 무리폐사를 막을수 있는 기술을 확립하여 올해에 수십여만마리의 새끼련어들을 바다에서 양어할수 있게 한데 대하여 우리 과학자들이 정말 용라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알반이와 알깨우기, 새끼고기생산을 정상화하고 식물성먹이에 대한 연구를 더욱 심화시켜 다량생산하며 과학적인 종어보존체계를 세우고 종어가 퇴화되지 않게 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나라의 수산자원과 생태환경을 적극 보호하기 위한 사업을 전당적, 전국가적, 전인민적인 사업으로 강하게

밀고나가며 바다양어, 양식, 민물양어를 광범히 벌리고 새끼고기들을 대대적으로 방류하기 위한 사업을 일관성있게 내밀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이제서야 련어를 안전하게 생산할수 있는 물질기술적토대가 충분히 갖추어져 고 과학화, 현대화수준도 한계단 높아져 련어양어를 보다 활성화할수 있게 되었다고 대단히 만족하시면서 우리 나라에 전망이 확고한 고급어족생산기지가 마련된데 대하여 기쁨을 금치 못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석막대서양련어종어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양어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 공업화, 집약화의 기치를 높이 들고

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감으로써 우리의 양어정책관철에서 전국의 본보기가 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조선인민군 제810군부대산하 락산바다련어양어사업소와 석막대서양련어종어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우리 군인들과 인민들에게 맛있는 물고기를 먹이시기 위해 머나먼 북변의 양어기지에 또다시 찾아오시어 자기들의 성과를 따듯이 고무격려하여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 다함없는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건인불발의 개척정신과 창조정신으로 바다양어에서 기어이 통장훈을 부를 불라는 결의를 다짐하였다.

본사기자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청진조선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청진조선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혁명사적교양실을 돌아보시였다.

우리 나라 동해의 강력한 배무이기지인 청진조선소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의 손길아래 주체적선박공업발전과 나라의 국방력강화에 적극 이바지하는 대규모선박건조기지로 장성강화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청진조선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12차례, 위대한 장군님께서 6차례 다녀가신 영광의 일터에서 일하는 한없는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조선소의 자랑찬 발전행로에 아로새겨진 충실성의 바통, 자력갱생의 바통을 이어 배무이에서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창조함으로써 우리 당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길이 빛내여가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현지지도하신 낫사슬직장을 비롯한 여러 생산공정들과 배무이현장을 돌아보시면서 조선소의 전반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날 조선소에서 새로 무는 전투함선의 구조와 전술기술적재원, 무장장비설치정해도 료해하시고 몸소 시험항해도 해보시면서 조선소로동계급이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해군무력을 보다 강화할수 있게 기동 및 화력능력이 뛰어나

난 전투함선을 잘 만드는데 대하여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청진조선소는 배무이력사도 있고 기술수준도 높기때문에 앞으로 여러가지 배들을 더 잘 만들어낼수 있다고 고무하여주시면서 이곳 조선소의 배무이공정을 더욱 현대화하는데서 나서는 구체적인 과업들을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세 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있고 강하천이 많은 우리 나라에서 경제전반을 활성화하고 인민생활을 높은 단계에 올려세우자면 결정적으로 선박공업을 추켜세워야 한다

고 하시면서 대형집배와 화객선, 고기배, 전투함선을 비롯한 여러가지 배들을 많이 무어냄으로써 수산업과 해상운수, 대외무역과 국가방위력을 더욱 공고발전시켜야 한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청진조선소는 우리 나라에서 큰 배를 무어내는 조선소들중의 하나이며 20여년전에 대형 화객선 《만경봉-92》호를 훌륭히 건조한 력사가 있고 전망이 있는 조선소라고 하시면서 청진조선소를 정비확장하고 개건현대화함으로써 선박건조능력을 높일데 대한 전투적과업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청진조선소를 선박의 설계로부터 배무이와 의장품생산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모든것을 자체의 힘과 기술로 보장할수 있는 물질기술적토대와 기술력량을 그췌히 갖춘 현대적인 대규모배무이기로 튼튼히 꾸려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자신께서는 청진조선소 로동계급을 굳게 믿고 새로 계획하고있는 현대적인 화객선을 건조하는 사업을 이곳 조선소에 맡길것을 결심하였다고 하시면서 이미 《만경봉-92》호를 만들어본 경험도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수 있을것이라고, 대담하게 일판을 벌리고 혁명적으로 달라붙어 한번 본때있게 해보자고, 이 과정에 조선소의 배무이기술을 더욱 발전시키고 생산공정들의 과학화, 현대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함으로써 청진조선소가 우리 나라 선박공업을 한계단 도약시키는데서 기치를 들고나가게 하자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대중의 무궁무진한 사상의 힘, 위대한 정진력을 총발동할 때 이 세상에 못해낼 일이 없다고 하시면서 조선소의 개건현대화전투와 화객선건조전투를 통하여 주체혁명의 핵심부대, 나라의 만아들인 영웅적인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의 혁명적본태와 사상정신적특질을 남김없이 파시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청진조선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당이 제시한 새로운 투쟁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빛나는 위훈을 창조함으로써 당중앙의 기대에 훌륭히 보답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청진조선소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머나먼 자기들의 일터에 찾아오시여 따듯이 고무격려해주시며 주체적선박공업발전의 진로를 밝혀주시는 원수님께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원수님께서 제시하신 전투적과업관철에 한몸 다 바쳐 투쟁할 불타는 결의에 넘쳐있었다.

본사기자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라남탄광기계련합기업을 9월1일기계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라남탄광기계련합기업을 9월1일기계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혁명사적교양실과 과학기술보급실, 기계조립장을 비롯한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생산실태를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공장로동계급이 치렬한 돌격전을 벌려 생산 및 생활건

물들을 현대적으로 건설하고 공장안팎을 일신한데 대하여 평가하시면서 생산건물들의 정상유지관리사업과 함께 생산공정과 설비들의 기술개선사업도 계속 힘있게 내밀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기계생산과 대상설비생산의 열풍이 세차게 휘몰아치고 있는 들끓는 작업장들을 보시면서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창조

적협조를 강화하고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광범히 벌려 생산능력을 확대하고 기계제품들의 현대화, 자동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과학기술보급실을 더 잘 꾸리고 일하면서 배우는 학습기풍을 철저히 세워 공장종업원들도 두가 다 기계설비에 정통하고 현대과학기술로 튼튼히 무장함으로써 기계제품

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이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라남탄광기계련합기업을 9월1일기계공장의 임무와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기치를 높이 들고 공장을 굴지의 기계제작중심기지로 더욱 훌륭히 꾸려나가기 위한 과업과 방도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절실히 요구하는 능률높고 현대화된 각종 기계제품의 생산에서 일대 비약을 일으킴으로써 나라의 기계제작공업발전에 적극 이바지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본사기자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염분진호텔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염분진호텔 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 여러차례에 걸쳐 바다물도 맑고 백사장도 훌륭한 염분진에 호텔을 잘 건설할데 대하여 주신 교시에 따라 2011년 7월에 착공한 염분진호텔건설은 기본건축공사를 끝내고 현재 내부공사단계에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염분진호텔건설이 끝조공사를 끝낸 때로부터 6년이 지나도록 내부미장도 완성하지 못하고있는데 대하여 지적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 몸소 호텔의 위치를 풍치수려한 염분진바다가로 정해주시고 건설정형을 수시로 알아보시며 생의 마지막날까지 관심하시던 대상공사인데 아직까지 완공하지 못하고있다고, 전당이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을 위한 사업을 주선으로,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총력을 집중하고있는 때에 호텔건설을 해마다 계속 조절하면서 미적미적 끌고있는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하시면서 결정적인



염분진지구를 인민들의 훌륭한 문화휴식터로 이채롭게 꾸리기 위한 건설방향과 방도를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염분진은 바다가경치가 류달리 아름답고 철길과 배길, 도로가 가까이 있어 교통조건도 좋은것만큼 인민들이 아무때나 와서 문화휴식을 하기에 더없이 리상적인 곳이라고 하시면서 호텔건물을 중심으로 해안을 따라 600여m 구간에 다양한 형태와 용도의 해안공원숙소와 봉사시설들을 더 건설하여 이 지구를 투쟁있는 염분진해안공원으로 꾸려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염분진과 그 주변에는 명소들과 유명한 온천들도 있으므로 편의봉사시설들을 훌륭히 갖춘 현대적인 호텔, 리관들이 건설되면 도내인민들뿐아니라 온 나라 인민들이 이 일대에서 등산과 해수욕, 낚시질과 천렵, 온천욕을 하며 충분한 휴식과 문화정서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게 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대책을 세워 빨리 완공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당에서 자금

과 자재보장대책을 세워주겠으니 함경북도당위원회가 도안의 일군들과 건설자들을 수령의 유훈관철전으로 총결기

시켜 다음해 10월 10일까지 염분진호텔을 보란듯이 일떠세우고 위대한 장군님께 총정의 보고를 드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본사기자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온포휴양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온포휴양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함경북도 경성군에 자리잡은 온포휴양소는 우리 나라에서 력사가 오래고 규모가 가장 큰 휴양소로서 사람들의 건강과 치료에 아주 좋은 유명한 온포온천으로 하여 전국에 소문이 난 곳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조국이 해방된 이듬해부터 수십차례나 이곳 휴양소를 찾아오시어 몸소 휴양객들의 터전도 잡아주시고 휴양일과까지 하나하나 짜주시면서 평범한 근로자들의 건강증진과 문화정서생활에 참답게 이바지하는 문화휴

양지로 되도록 세심히 보살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도 여러차례 다녀가신 온포휴양소에는 인민군인들이 휴양소건너편에 현대적으로 건설하였던 메기공장을 없애고 그 건물을 통채로 휴양생들을 위한 종합적인 봉사기지로 꾸리도록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신 감동적인 혁명일화가 가슴뜨겁게 전해지고있다.

우리 인민들에게 훌륭한 문화정서생활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한 사업에 언제나 선차적관심을 돌리고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깊은 밤 온포휴양소를 찾으시어 관리운영실태와 형편을 료해하

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늘 강조하는 것이지만 령도업적단위 일군들은 일을 잘하여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사적을 말이나 글로써가 아니라 인민들이 실지 그 덕을 보게 함으로써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얼마나 고귀한 유산들을 우리에게 남겨주시였는가를 떼부로 절감하게 해야 한다고 절절히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경성군당위원장에게 온천의 용출량과 용출구의 온도, 육탕의 온도는 얼마이며 휴양소의 수용

능력은 얼마인가, 지금 휴양생들이 몇명이나 있는가를 상세히 알아보시고 온포휴양소를 현대적으로 새로 건설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우리 나라의 유명한 온천지대인 온포휴양소일대를 인민들의 편의와 높아가는 문화정서적요구가 최상의 수준에서 구현된 휴양지로 투쟁색있게 잘 꾸려보자고, 인민군대가 다음해에 멋들어지게 건설하여 우리 인민들에게 선물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경성군은 별도 있고 산과 바다도 끼고있으며 교통조

건도 좋다고, 공업과 농업, 수산업을 발전시킬수 있는 토대도 일정하게 갖추어져있는것만큼 군당위원회가 자연경제적 조건이 유리한 군의 경제를 빨리 발전시키기 위하여 머리를 쓰고 이악하게 투쟁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경성군당위원회가 당정책관철에로 군내인민들을 조직동원하여 자체의 힘으로 군을 살기 좋은 훌륭한 고장으로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투쟁에서 획기적인 전변을 가져오리라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본사기자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 함경북도 경성군 중평리에 대규모남새온실농장을 꾸리실 구상을 안으시고 현지를 돌아보시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함경북도 경성군 중평리에 대규모남새 온실농장을 꾸리실 구상을 안으시고 현지를 돌아보시었다.

별방지대보다 불리한 북부해양성기 후조건에서도 사철 푸르싱싱한 갖가지 남새를 많이 생산하여 인민들에게 풍족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깊이 마음써오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당중앙군사위원회 결정으로 이동배치하게 되는 경성군

중평리의 비행련대구획에 대규모의 남새 온실농장을 꾸리실 구상을 안으시고 현지에 나가시어 부지를 직접 료해하시고 웅대한 남새온실농장건설전망계획을 밝혀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비행장구획의 광활한 우토를 바라보시며 여기에 100정보의 남새온실농장을 건설하면 멋있을것이라고, 이만한 온실면적이면 도내인민들의 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킬수

있을것이라고 하시면서 오늘 정말 기분이 좋다고, 이렇게 인민을 위한 보람있는 일을 하나하나 찾아할 때가 제일 기쁘다고 하시며 더없이 만족해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되는 거창하고 방대한 규모의 남새온실농장건설이므로 인민군대가 전적으로 맡아 불이 번쩍 나게 해제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당에서 함경북도인민들을 위하여 투자를 아끼지 않고

마음먹고 마련해주는 농장인것만큼 건설속도와 질을 다같이 보장하며 최상의 수준에서 건설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농장원들의 주택지구와 문화후생시설도 도시부럽지 않게 현대적으로 문명하게 지어주어 농장마을을 그야말로 살기도 좋고 일하기도 좋은 사회주의농촌문화건설의 본보기, 사회주의락원으로 훌륭하게 꾸려주

자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남새온실농장건설을 힘있게 추진하기 위한 강력한 건설지휘부를 조직하고 각 부문별로 상무를 내올데 대한 문제, 온실설비제작과 건설자재보장문제, 온실기사양성과 종자, 로력확보문제를 비롯하여 농장건설과 운영준비에서 나서는 총적방향을 제시하시었다.

본사기자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청진가방공장을 현지지도하시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청진가방공장을 현지지도하시었다.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질 좋고 맛있는 가방을 안겨주고싶으시어 늘 마음써오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최근년간 전국적수요를 충족시킬수 있는 가방천과 자크를 비롯한 가방제작용자재생산공정들을 하나하나 꾸려주시었으며 그 능력이 갖추어진데 맞게 매도들에서 독립적인 학생가방생산공장을 잘 꾸리고 자재들을 보장받아 질 좋은 가방을 대대적으로 생산공급하는 사업을 중요한 정책적과업으로 틀어쥐고 강하게 내밀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었다.

그러나 함경북도당위원회에서는 당에서 후대교육사업을 그토록 중시하며 학생들에게 필요한 모든것을 우리의것으로 마련해주기 위하여 발기한 사업을 소홀히 하면서 가방공장을 능력에 맞게 새로 건설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정중히 접수하지 않고 청진재생섬유공장건물의 허술한 방들을 내어 가방생산기지를 너절하게 꾸려놓음으로써 지방의 가방생산실태를 료해하기 위하여 찾아오신 경애하는 원수님께 커다란 걱정을 끼쳐드리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도당위원회가 제일 선차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중요한 정책적문제를 놓치고 형식주의적으로 일하고있다고, 당의 방침을 접수



하고 집행하는 태도가 매우 틀러먹었다고, 당정책관철을 위하여 이악하게 달라붙어 투쟁하는 혁명적기공파 주인다운 일본세가 돼먹지 않았다고 엄하게 지적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공장의 기본 실을 돌아보시면서 가방생산을 시작하지

1년반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사이 가방생산수준이 높아졌다고, 종업원들의 수준이 괜찮다고 하시면서 가방의 색깔과 크기도 다양하고 년령특성에 맞게 품들이 잘 만들고있다고 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가방의 멜빵에 전반적으로 해면을 좀더 두텁게 넣어

야 하겠다고 하시면서 특히 어깨부분에는 지금의 두배만큼 해면을 넣어 무거운 책가방을 메어도 아프지 않게 만들어야 한다고 이르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가방의 질을 더 높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원자재생산을 말

은 중앙의 공장들에서 가방천과 자크, 레프를 비롯한 가방부속자재들을 국산화하고 높은 수준에서 생산보장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특히 재봉을 질적으로 간지게 하여 어린이들과 학생들이 가방을 힘하게 다루어도 실이 풀리거나 터져나가지 않도록 든든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가방생산원가를 더 낮추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지금 학생들에게 공급하고있는 민들레학습장과 가방을 비롯한 학생용품들의 가격을 다시 잘 검토해볼데 대한 지시를 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국가적부담이 커지더라도 인민들에게 불편을 주면 안된다고 하시면서 가격에 대한 균중의 평가를 들여보고 바로잡을것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공업의 잠재력이 큰 함경북도가 일떠서야 나라의 전반적경제가 활력있게 전진할수 있다고 하시면서 함경북도당위원회가 결함을 하루빨리 시정하고 당정책관철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전개해나감으로써 도를 나라의 믿음직한 기간공업지대로 든든히 꾸리고 인민생활향상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오리라는 기대를 표명하시었다.

본사기자

# 주제넘는 허욕과 편견에 사로잡히면 일을 그르치기마련이다

오늘 세계의 초점은 력사에 전무후무한 특대사건들이 연발되고있는 조선반도에 집중되어 있다.

력사적인 판문점수뇌상봉과 회담으로 장장 70여년이나 조선반도에서 지속되어온 민족분열의 비극과 대결사에 종지부를 찍고 민족자주와 통일, 평화와 번영에로 나아가는 새로운 력사적흐름이 거창한 대화가 되어 용용히 끊어지고있다.

지구상에서 세기를 두고 가장 오래동안 첨예하게 이어져온 조미적대관계도 싱가포르조미수뇌상봉이라는 《세기의 담판》으로 일시에 극적인 전환을 맞이하였다.

바로 이러한 때 화해평화분위기를 풍수없이 취하지도 관계개선을 저해하는 온당치 못한 발언들이 때없이 튀어나와 만사합의 미간을 찌르려 하고있다.

최근 남조선당국은 여러 계기에 저들이 골진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한다는 공동의 인식밑에 북의 겨울철을림경계기대회참가와 고위급 특사대왕, 남북수뇌회담과 북미 수뇌회담에 이르는 《력사의 대전환》을 이끌어냈다고 사실을 전도하며 체면도 없이 자화자찬하고있다.

이어 주변국들과의 련쇄적인 외교로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국제적인 지지분위기를 조성하였다고 청을 들으면 끝에는 나중에는 북과 미국이 국제사회앞에서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것이라는 주제넘는 발언도 늘어났다.

눈앞에 펼쳐진 현실에 대한 맹목과 주관으로 일관된 편견이고 결과를 낳은 엄연한 과정도 무시한 아전인수격의 생역지이며 제처지도 모르는 회맹어 《훈시》라고 평하지 않을 수 없다.

사태의 심각성은 이것이 일 아니라 바로 남측의 《국책》에 따른 고의적인 여론확산이며 고위당국자들이 그 주창자로 나섰다는데 있다.

누구든지 사물현상에 대한 평가와 주장을 할수 있지만 일면적인 사고와 편견은 부당한 결과를 산생시키고 정의와 진리를 오도하는 죄악으로 된다.

현실은 우리로 하여금 남조선 당국의 사유의 기초이고 발언의 근거이며 행동의 담보인 《한반도운전자론》에 대해 재조명하고 그 실체를 해부해볼 필요를 느끼게 하고있다.

남조선당국이 《한반도평화를 향한 련정의 운전석》을 운운하며 《한반도운전자론》을 들은고나온것은 불과 1년전의 일이다.

그 짧은 기간이지만 조선반도 문제를 해결할 힘도, 합의의 이

끌어낼 능력이 없다는것을 남조선당국이 자인하고 맥빠진 탄식까지 늘어놓았다는것은 내외가 다 아는 사실이다.

그것은 조선반도에 조성되었던 전쟁국면이 평화국면으로 180°의 전환을 꾀하는 현실이 어떻게 되어 펼쳐졌는가를 그들 스스로가 인정하였기 때문이다.

새해 첫하룻뜻깊은 올해를 기념하여 특기할 사변적인 해, 위대한 전환의 해로 되게 하자는 천출위원의 호소가 천하를 진감한데 이어 평창을 뒤흔들여놓은 통일사절단, 평화사절단의 우렁찬 통일합창과 29일동안에 두차례나 진행한 력사적인 남북수뇌상봉과 회담이 이 땅우에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시대가 펼쳐지고 고위급회담과 부분별회담들,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에서 진행되는 모든 사업들이 과연 어떻게 마련되었는가.

싱가포르에서 조미수뇌상봉과 회담이 진행될 력사적인 순간은 조미적대관계를 일시에 불식시키고 또 하나의 새로운 시대, 조미협력의 시대가 펼쳐지는 엄청난 과업을 가져왔다.

그야말로 우리는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의 새 력사를 써나가기 위하여 할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대범한 조치들을 과감한 실천행동으로, 련발적으로 보여주었다.

이 엄연한 현실은 남조선당국이 《한반도운전자론》을 꺼내든 것 자체가 얼마나 비정당인가를 백일하에 드러내보여주고있다.

한편 운전자라고 하면 차를 몰아갈 도로를 선택하고 운전방향과 속도 등을 스스로 판단하고 조절해나가는 사람을 말한다.

그렇다면 남조선당국이 북남관계의 개선과 발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자기 주권을 가지고 대 마음먹은대로 실천해나가고있단 말인가.

남조선당국이 입버릇처럼 외우는 《한반도운전자론》이나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를 위한 《주도적역할론》이 얼마나 황당무계한 상상이하의 캐쥬얼인 가 하는것은 판문점선언언어 그들 자신이 취한 행동만 놓고서도 잘 알수 있다.

이미 알려진바와 같이 력사적인 판문점선언에 도장을 찍고 돌아왔기 바쁘게 미국과 아합하여 우리를 겨냥한 극히 모험적인 련합공중전투훈련을 강행하는 한편 집결은 들개보다 못한 인간협력의 시대가 펼쳐지는 엄청난 과업을 가져왔다.

그야말로 우리는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의 새 력사를 써나가기 위하여 할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대범한 조치들을 과감한 실천행동으로, 련발적으로 보여주었다.

의 어느 조항, 어느 문구에 상대방을 노린 침략전쟁연습을 최대로 벌려놓으며 대화상대방을 중상모독한다는 내용이 있는가.

남조선당국은 우리의 대화타에 리무진에 달리는 판문점선언의 리무진을 떠돌고있지만 미국상선의 눈치만 살피며 북남관계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아무런 실천적인 조치들도 취하지 않았고으며 그것으로 하여 북남사이에 해결하여야 할 중대문제들이 말쑥치만 메봉은재 무기한 표류되고있다.

남조선의 각계각층이 판문점선언발표이후 저저마다 북남관계해와 협력의 거창한 대화에 합류하려는 열의에 충만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핵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남북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대북제재의 틀안에서 가능한 북과의 협력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하면서 음모로 양로 방해하고 《여건조성》을 외위대며 한사코 제동을 걸고있는것이 남조선당국이다.

주변국들을 찾아다니며 《대북제재압박공세의 지속》에 대한 《국제적지지》를 구걸하고 북남관계에서 제기되는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도 외세의 제재를 받기 위해 미국이요, 일본이요 하며 불쌍하게 동분서주하는것이 바로 남조선당국이 제창하는 《주도적

역할》이다.

남조선이 이쪽에 아무런 저쪽이 반발하고 저쪽에 굴종하면 이쪽이 어긋장을 놓는 악순환에서 운전자는커녕 조수노릇도 변변히 하지 못한다는것은 지나온 력사를 통해 알고도 남을 너무나도 명백한 리치이다.

현실에 대한 독특한 주관도, 대세에 대한 초보적인 판단감각도 없이 헤엄쳐치는 남조선당국의 행태가 얼마나 답답하고 민망스러웠으면 서방언론들까지 《운전자론이 아닌 방관자론》, 《몽유병자의 잠이빛환상》이라고 조소하고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은 현 조선반도의 대화국면이 그무슨 《신베를린구상》이 현실화될것이라고 낮도깨비같은 소리를 하고있으니 실로 가스로운 일이 아닐수 없다.

더욱 경악하지 않을수 없는것은 갑자기 재판관이나 된듯이 조미공동성명의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그 누구가 《국제사회로 부터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것》이라고 감히 입을 놀려던것이다. 조미쌍방이 싱가포르공동성명 리행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있는 현실에 눈을 감고 주제넘는 예상까지 해가며 늘어놓는 무례무도한 꾀설에 누가 귀동이라든 돌려대겠는가.

허황한 《운전자론》에 몰입되

어 쓸데없는 《훈시》질을 해대는것은 조선반도의 평화과정에 풍파를 일으키고 불순세력들에게 어부지리를 주는 불행한 결과만을 초래하게 될것이다.

현실은 무엇을 시사해주는가. 남조선당국이 민심에 떠밀리워 판계개신이라는 면사모를 쓰고있지만 실제로는 불순한 대결시대의 사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다는것이다.

낱고 망해버린 보수세력이 만들어놓은 사대와 대결의 족쇄에 묶이여 새로운 력사의 출발선에 서서 세명세이대 내달리지 못하고있는것이 남조선당국의 현 처지이다.

우리는 남조선당국의 말과 행동을 예리하게 주시하고있다. 요즘 통일부 당국자들이 때없이 늘어놓는 대결연동도 스쳐지나지 않고있다.

남조선당국은 지금과 같이 중대한 시기에 저들의 정치적 리속이나 체면유지에만 급급하면서 함부로 설쳐대지 말아야 한다.

충고하건대 남조선당국은 이제라도 제정신을 차리고 민심의 요구대로 외세추종이 아니라 진정으로 자주통일의 길, 우리 민족끼리의 길에 나서야 한다.

바로 여기에 남조선당국의 전도가 있다. 김춘순

## 박근혜 보수패당이 저지른 특대형유인람치범죄

남조선에서 박근혜적패당이 《국정원》을 내세워 공화국의 여성종업원들을 집단적으로 강제유인람치된 특대형범죄의 내막이 또다시 폭로되어 커다란 사회적비판 여론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얼마전 유엔 《인권특별보고관》은 기자회견에서 《일부 북여성종업원들을 직접 만나본데 의하면 그들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남조선에 오게 되었다.》, 《만약 이들

이 람치된것이 사실이라면 범죄로 간주되어야 한다.》, 《한 (정부)가 철저한 조사에 나서 사건관계자들을 찾아내어 처벌하며 돌아가기를 희망하는 종업원들의 의사를 존중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남조선보수패당의 유인람치범죄에 직접 가담하였던 당시의 식당 지배인은 최근 남조선 《림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국정원)

이 종업원들과 함께 남조선에 오라고 나를 회유하였다.》, 《내가 결심을 내리지 못하자 그들은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면서 여성종업원들을 끌고오라고 강요하였다.》, 《사실 여성종업원들모두는

남남아시아에 개설하는 새로운 식당에서 일하는줄 알고 따라나섰다가 남조선비행기에서 울러서야 남조선에 끌려 오게 되었다.》고 있었던 사실을 그대로 실도하였다.

이로써 더러운 정치목적 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비열한 유인람치행위도, 불법무법의 모략행위도 서슴치 않은 박근혜패당의 추악한 정체가 다시금 세상에 날날이 드러나게 되었다.

공화국 여성종업원들의 《집단탈북사건》이라는것은 철저적 박근혜적패당이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불리한 정치체제를 역

전시킬 불순한 목적밑에 꾸민내 모략극이었다. 지금껏 그 추악한 죄상이 폭로될가 공화국의 여성종업원들을 《국정원》의 통제와 감시하에서 사회와 철저히 격리시키고 《귀순》과 《집착》을 운운하며 여론을 오도해온 역적패당의 반인륜적야행에 온 겨레는 치솟는 격분을 금치 못하고있다.

문제는 모략사건의 흑막이 어지없이 밝혀진 오늘날에 와서까지 막무가내로 부정하면서 과거 보수 《정권》의 죄악을 싸고도는 통일부장관 조영균을 비롯한 현 남조선당국자들의 철면피한 처사이다.

말끝마다 과거의 죄를 청산한다고 떠들며 도처에 《수술칼》을 들이대는 남조선당국은 이 《기획탈북사건》에만 손을 놓고있는것이다.

남의 귀한 딸자들을 몇해째 부모와 강제로 갈라놓고도 《리산가족의 아픔》, 《인도주의문제해결》, 《남북관계발전》을 떠들어대는 남조선당국의 표리부동한 행태에 한평생을 고향을 그리며 강제유인람치범죄에 대해

유인람치된 공화국 공민들에 대한 태도문제는 남조선 당국의 북남관계개선의지를 보여주는 시금석이라고 말할수 있다.

공화국 여성공민들의 송환 문제가 시급히 해결되지 않으면 일정에 오른 북남사이의 출렁이 가족, 친척상봉은 물론 북남관계에도 장애가 조성될수 있다.

지금 남조선선언문, 시민사회단체들은 《국가기관이 개입된 범죄》라고 성토했면서 새로운 북남관계개선을 위해서도 정보기관이 자행한 적폐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북의 여성종업원들을 돌려보내며 책임있는자들을 엄벌에 처하라고 들고일어나고있다.

남조선당국은 박근혜보수 《정권》이 감행한 반인륜적 범죄행위들에 대해 늦게나마 시인하고 사건진상에 대해 엄격히 조사하며 관련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

그리고 김련희녀성을 비롯하여 강제여류하고있는 공화국의 공민들을 가족들이 기다리는 공화국의 품으로 즉시 돌려보내야 한다. 분사기자 김영진

최근 남조선의 여러 시민 사회단체들이 판문점선언에서 합의한대로 정전협정 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선언을 반드시 채택할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있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과 평화협정체결 운동본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시위와 집회, 기자회견들을 열고 《미국이 북의 비핵화만을 일방적으로 요구하고있다.》,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위해 미국도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하면서 종전선언체택에 나설것을 주장해나서고있다.

남조선선언문, 시민사회단체들은 《국가기관이 개입된 범죄》라고 성토했면서 새로운 북남관계개선을 위해서도 정보기관이 자행한 적폐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북의 여성종업원들을 돌려보내며 책임있는자들을 엄벌에 처하라고 들고일어나고있다.

남조선당국은 박근혜보수 《정권》이 감행한 반인륜적 범죄행위들에 대해 늦게나마 시인하고 사건진상에 대해 엄격히 조사하며 관련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

그리고 김련희녀성을 비롯하여 강제여류하고있는 공화국의 공민들을 가족들이 기다리는 공화국의 품으로 즉시 돌려보내야 한다. 분사기자 김영진

첫 공정이며 조미사이의 신뢰조성을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특히 종전선언을 일으키고 전기간 전쟁에 참가한 미국이 종전을 선언하는데 마땅한 책임과 의무감을 지니고있다는것은 삼척동자에게도 뻔한 일이다. 저들이 옹당 해라 할 의무만 종전선언체택을 마치 그 누구에게 주는것은 《선사품》처럼 어기는것은 무지의 표현이라고 밖에 달리 말할수 없다.

종전선언문제는 력사적인 판문점선언에 명시된 합의사항의 하나로서 북과 남은 그것을 리행할 의무가 있으며 미국도 이를 전폭적으로 지지했었다. 그러던 미국이 최근 림장을 돌변하여 종전선언을 거부하고있는 조건에서 판문점선언의 리행을 위해 남조선당국이 수

수방관해서서 안된다. 남조선 각계각층의 요구가 보여주는것처럼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선언을 채택하는것은 이제 더는 막을수 없는 시대의 요구, 거세찬 대하의 흐름이다. 옥철웅

## 평화를 반대하는 전쟁당

최근 남조선의 《자유한국당》 패거리들이 종전선언체택문제를 놓고 이리저리러공 하고있어 사람들의 눈총을 받고있다.

지난 12일 이 당의 수석대변인인 라는자가 나서서 《종전선언을 한다는것은 평화가 오는것이 아니고 북의 비핵화없이 《한》반도평화는 없다.》는 망발을 늘어놓았다. 원내대표라고 하는자도 《종전선언은 북의 완전한 핵폐기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담보했을 때 국민과 공론화하는것이 맞다.》는 얼토당토 않은 소리를 늘어놓아 사람들을 아연케 했다.

《자유한국당》 패거리들의 이러한 추태는 북남, 조미화해흐름을 파탄시키고 조선반도에 첨예한 대결과 전쟁국면을 조성하려는 대결광신자들의 발악이며 민족의 운명과 전도는 아랑곳없이 저들의 더러운 야욕만을 추구하는 천하역적들의 망동이다.

둘이켜보면 《자유한국당》 패거리들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가로막고 조선반도에 대결과 전쟁을 불어넣기 위해 피눈이 되어 날뛰어온 범죄자들이다.

특히 이자들이 권력의 자리에 올라있던 시기는 우리 민족의 머리를 어 핵전쟁의 검은구름이 항시적으로 떠돌고 조선반도의 평화가 엄중히 위협당해온 나라들의 현속이었다.

하기에 남조선인민들은 민족반역의 무리인 《자유한국당》에 준엄

한 력사의 심판을 안기였으며 지금도 이자들이 사회전반에 끼친 죄악을 청산하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리고있다.

족제비도 낱적이 있다는데 《자유한국당》 패거리들이 한조각의 량심이나 리성이 있다면 어느 구석에 숨어서 자기의 죄과를 반성하는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이런자들이 아직도 대낮에 머리를 빼듯이 쳐들고 온 겨레가 지지관통하는 판문점선언의 리행을 위한 사업에 훼방을 놓고있으니 참으로 꼴불견의 극치가 아닐수 없다.

종전선언을 채택하는것은 력사적인 판문점수뇌상봉과 싱가포르조미수뇌회담에서 합의된 문제로서 조선반도의 긴장완화와 공고한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첫 공적이다.

지금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선언을 채택함으로써 조선반도에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를 마련하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고있다.

개가 아무리 짖어도 기차는 달리는 법이다.

《자유한국당》 패거리들이 대세가 어떻게 흐르는지조차 분별하지 못하고 종전선언체택을 방해해보려고 어리석게 들고있지만 그것은 이 당이야말로 민심에 역행하는것만 골라하는 반역당, 평화를 바라지 않는 전쟁당이라는것을 다시금 증명해줄뿐이다. 분사기자 김철민

남조선에서 기무사령부의 불법사찰한 범죄행위들이 계속 드러나 민심의 분노를 격양시키고 있다.

알려진것처럼 기무사령부가 지난해 3월 박근혜 《정권》을 위기에 걸치기 위해 군사 쿠데타를 계획하고 그와 관련한 문건을 만들었다는것은 이미 폭로된 사실이다.

그런데 얼마전 남조선의 한 언론은 《계엄령》선포와 관련한 기무사령부의 문건이 이미 2016년 11월경에 작성되었다고 보도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기무사령부는 박근혜역도의 탄핵을 요구하는 남조선인민들의 대중적인 조졸집회가 시작된 때로부터 얼마후인 지난 2016년 11월에 그 무순 《통수권자의 안위를 위한 군의 역할》이라는 문건을 작성하였다고 한다. 《최악의 국면에 대비》하기 위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기무사령부의 역할 명시를 해당 문건에는 《국방부》 장관은 《질서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에게 《계엄령》선포를 건의하며 합동참모본부는 비상계획을 수립하고 기무사령부는 싸이비전문부대를 동원하여 시위와 관련한 정보를 수집하고 《계엄령》이 선포되면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게 되어있다고 한다.

이뿐이 아니다. 기무사령부가 박근혜보수 《정권》의 앞잡이가 되어 《세월》호참사의 진상을 덮어버리기 위해 민간인들

을 불법사찰한 범죄행위도 폭로되었다. 남조선언론들이 폭로한데 의하면 《세월》호참사가 발생한 이후인 2014년 4월부터 기무사령부는 수십명의 요원들로 모략기구를 내오고 운영했다고 한다. 이 모략기구는 《세월》호참사희생자유가족들과 《세월》호사고 희생자, 실종자, 생존자가족대책위원회 성원

들의 개인정보와 정치적경향을 분류하여 감시하였으며 보수단체들이 맞불집회를 벌리도록 관련자료들을 조직적으로 제공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박근혜가 분노한 민심을 가라앉히기 위해서는 《대국민담화》를 발표해야 한다는것, 담화문에서 희생자들의 이름을 빠짐없이 호명하며 눈물을 흘리는것과 같은 감성조작을 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된 각본까지 꾸며었다고 한다.

뿐만아니라 실종자들의 시신을 찾는 사업을 포기하도록 압박하고 비안여론을 녹찾기 위한 각본과 《세월》호참사유가족들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는 사회적분위기를 막기 위한 대책안 등을 작성하였다고 한다.

사실들은 남조선의 보수세력들이야말로 독재통치와 권력유지를 위해서라면 인민들에 대한 피비린 살륙만행도, 사람들의 생명까지도 서슴없이 해치는 극악한 파쇼범죄, 살인마들

이라는것을 더욱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보수패거리들이 기무사령부를 《정권》안보와 독재통치유지의 수단으로 써먹은 사실은 이것만 이 아니다.

통상참사, 4대강사업 등에 대한 여론조작이나 《정부》를 반대하는 정계인사들과 민간인들에 대한 사찰 등 바로 리명박

지난 9일 박근혜퇴진행동과 4.16연대, 민중공동행동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서울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계엄령》선포계획을 작성하고 실행하려고 한 기무사령부의 해체를 요구하였다.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은 《계엄령》선포와 관련한 기무사령부의 문건이 작성된 지난해

3월 보수단체들이 벌려놓은 집회에서 《계엄령》선포구조가 공공연히 울려나온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라고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그들은 기무사령부가 리명박 《정권》하에서 여론조작행위에 개입하고 박근혜 《정

권》하에서는 《세월》호참사유가족들과 시민들에 대한 사찰범죄도 감행하는 등 온갖 불법행위만을 저질렀었다고 하면서 기무사령부의 해체를 강력히 주장하였다.

한편 남조선의 한 단체는 《계엄령》선포계획을 작성하고 검토하는데 직접적으로 가담하였던 기무사령부의 전, 현 직관계자들을 내란에비유모의 및 군사반란에비유모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다.

남조선에서 보수 《정권》의 앞잡이가 되어 온갖 불법행위를 저지른 파쇼모략기구의 해체와 주범들의 처벌을 요구하는 인민들의 대중적투쟁은 날이 갈수록 더욱 강화되고있다. 분사기자 주광일



# 실제 행동으로 성의를 보여야 한다

좋은 일을 하려면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시비 군들도 나타나고 한다. 최근 미국언론들이 조선반도에 조성되고있는 평화분위기에 어울리지 않는 이리저리한 랑설들을 퍼뜨리고있다. 공화국이 비핵화협상의 막뒤에서 핵능력을 계속 강화하는 한편 핵무기와 핵시설들을 은폐하고있다는 여론을 내뿜고있는것이 그것이다.

얼마전 미국의 NBC방송, 신문 《워싱턴 포스트》와 《월스트리트 저널》, 외교안보전문잡지 《디플로매트》를 비롯한 주요언론들은 미정보기관들의 보고서와 위성사진자료 등을 근거로 북조선이 최근 수개월동안 여러 비밀장소에서 핵무기개발을 위한 고농축우라늄생산시설을 확대하고있다. 냉핵시설의 2배규모인 비밀핵연료생산시설이 존재하며 비밀핵무기시설도 최소 1개 이상 보유하고있다고 떠

들어대고있다. 이것도 모자라 함흥에 위치한 미사일공장을 확장하고 《북극성-2》형 이동발사대차를 비롯한 관련장비 생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있다고 광고해대고있다.

이것이 공화국의 선의와 야망, 평화에호적인 노력에 의해 마련된 조미관계선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국제사회의 지지와 관심을 보내고있는 고적인 도발행위라는것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은 세계가 역사적인 판문점수뇌회담과 싱가포르조미수뇌회담을 통하여 마련된 조선반도평화분위기에 지지도 관심을 보내고있는 때에 미국언론들이 조미관계개선에 인위적인 난관을 복잡성을 조성하는것은 매우 그릇된 처사가 아닐수 없다.

공정성과 객관성을 생명으로 하는 언론의 사명을 망각

하고 날조와 모략으로 일관된 허위보도들을 마구 내뿜는 미국언론들의 행태가 조미협상을 파란내기 위한 미국내 강경보수세력들의 입김으로 이루어졌다는것은 비밀이 아니다.

그것은 외파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받아들이며 여론을 환기시키고있는 정보기관들과 언론들이 조미관계개선을 달가와하지 않는 세력들의 총실한 대변자들이라는 사실을 통해서도 알수 있다. 단편적으로 지난 6월 29일 《북조선이 최근 수개월동안 농축우라늄 생산을 늘이고있다》고 한 NBC보도기사의 작성자는 2014년 미국의 기밀정보를 주로 다루던 온라인매체 《더 인터셉트》에서 CIA출신으로 밝혀져 쫓겨난 사람으로서 지난시기부터 조미관계개선을 달가와하지 않는 자였다. 이런것으로 하여 미국의 월가에서는 조미 긴장완화로 배제된 미중앙

정보국내 일부 과별이 미국의 군수업체들과 함께 《북비핵화의혹설》로 위기를 다시 조성하고있다는 설이 돌고있다.

간과할수 없는것은 현 미 행정부가 이것이 불순한 목적을 추구하는 랑설이라는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것을 공화국에 대한 압박용으로 써먹으려는 행태를 보이고있는것이다.

얼마전에 있는 공화국과 미국사이의 고위급회담에서 미국이 《신고》와 《검중》과 같은 일반적이며 무례한 요구만을 고집하며 종전선언과 같은 중대하고도 절실한 사안은 멀리 미루어 놓으려고 한다는 이를 그대로 실증해준다.

역사적으로 보면 미국은 지난 세기 90년대말 있지도 않는 《금강리화핵시설의혹설》을 들고나와 조미협상과정에 인위적인 난관과 장애를 조성하고 세계앞에 망신당한 전례가 있다.

조선반도에서의 평화를 바라지 않는 미국의 강경보수세력들이 내뿜는 《북비핵화의혹설》은 과거의 쓰디쓴 전철을 밟는 우매하고 유치한 놀음으로서 삼척 동자에게도 통하지 않는다.

호상존중하고 신뢰를 구축해야 하는 오늘의 현실에서 미 행정부가 지금까지처럼 반평화세력들, 대외반대세력들의 눈치를 보며 공화국과 상대대려 든다면 좋은 결실을 기대하기 힘들것이다. 싱가포르조미수뇌회담의 정신과 공동성명의 합의사항을 성실하게 리행하려는 공화국의 원칙적립장과 적극적인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

미국이 진실로 조미관계개선과 조선반도평화분위기 조성에 관심과 의욕이 있다면 호상신뢰와 존중의 정신을 기초하여 단계적이며 동시적인 실제행동으로 성의를 보여야 한다.

본사기자 리철민

## 제명령을 내리십시오

대적인 제명령을 내리십시오

## 남조선 금속로동조합이 사법, 로동적폐세력청산과 최저임금개악법 폐지를 강력히 요구

남조선언론들의 보도에 의하면 7월 13일 금속로동조합원들이 서울 서초구 《현대기아자동차》사옥앞에서 《금속로조 상경투쟁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사법부, 로동부 적폐세력청산, 최저임금개악법 폐지 등을 강력히 요구 하였다.

이날 남조선 전지역의 12만명에 달하는 금속로동자들이 일손을 멈추었으며 그

중 3만명의 로동자들이 푸른색 금속로조기발을 들고 상경투쟁을 벌리었다. 대회에서 발언한 조합원들은 내 임금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자》는 후후상박 임금체계가 한발도 전진하지 못하고있으면서 사회광우화를 개선하고 산별교섭을 한발자국 나아가게 하려는 금속로조의 요구를 끝내 거부할 경우 이번 총파업보다 규모가 큰

8월 2차 총파업, 상경투쟁을 단행할것이라고 경고하였다. 한편 총파업대회에 앞서 강남구 《테헤란로 소모교》 본사와 서초구 《대법원》앞에서도 금속로조의 각 지부, 지회의 사전대회가 열렸으며 참가자들은 한결같이 《위협의 외주파 멈춰라!》, 《사법적폐 청산하라!》고 강력히 요구하였다. 본사기자



만들수 있는 량이라고 한다. 일본은 그것도 성취하지 않아 핵물질을 계속 저축하고 있다. 일본은 임의의 순간에 술한 핵무기를 제작, 보유할 수 있는 모든 물질기술적조대도 마련해놓았다. 일본의 군사비도 해마다 늘어나 올해에는 5조 1 911억

원의 비위를 맞추며 조선반도정세흐름에서 밀려난 가련한 처지를 모면하고 저들의 《존재감》을 과시해보려는 정치난쟁이의 날팍한 타산이 깔려있다.

지금 조선반도에는 공화국의 주동적인 조치에 의하여 안정과 완화를 지향하는 대

세의 흐름에 따라서지 못하고 본전도 못 찾은 대결나발을 계속 붙여대고있다.

일본은 자중할 필요가 있다. 괜히 참새골을 굴리며 쫓겨 호르는 지역정세를 해치고 쫓잡스럽게 놀아대가는 시대밖으로 더욱더 밀려나는 비참한 결과밖에 차레질것이다. 김일수

남조선에서 6월에 있는 지방자치선거에서 민심의 《사형선고》를 받은 《자유한국당》이 꺼져가는 운명을 견져보려고 모지름을 쓰고있다.

이 당이 《쇄신》과 《변화》의 간판밑에 벌려놓고있는 가소로운 추태들은 여론의 조소거리로 되고있다.

지난 11일 《자유한국당》은 서울 여의도에 있던 당사사를 영등포구로 옮기고는 《기득권》과 잘못된 인식을 모두 여의도에 버렸다. 《(국인)들이 부를 때까지 쇠신과 변화의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을것》이라며 무슨 일이나 철것처럼 떠들어대고있다. 절망 삶은 소웃다 꾸레미 티질새음이 아닐수 없다.

《자유한국당》이 당사를 옮긴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자유한국당》의 조상인 《한나라당》은 16대 《대선》에서 패배대 이어 2004년에 있는 《차떼기불법대선자금사건》과 《로부현관택》역영으로 위기에 직면하자 17대 《총선》을 20여일 앞두고 중소기업전시관의 빈터에 《천막당사》를 꾸린 후 민심을 실망시킨것에 대해 《사죄》하고 새롭게 출발하

## 썩은 호박은 땅속에 묻힌다

《한나라당》을 모조리 버리고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하여 모면한바 있다. 노루 한번 친 풍동이 석삼년 우려먹는다고 이번에도 《자유한국당》은 조상들의 뼈를 마 여의도를 떠나 당사를 옮기는것으로 리명박, 박근혜역도들의 당이었다는 부정적인인식을 털어버리고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것을 보여줌으로써 과구에 처한 당을 어떻게 하나

유지해보려 하는것이다. 그러나 이런 기만적인 놀음이 민심에 통하겠는가.

그들이 《기득권》과 잘못된 인식을 모두 여의도에 버렸다고는 하지만 정작 그들이 하는 행동은 말과 정반대이다. 《국회》에서 더 많은 권력을 차지해보겠다고 퍼루성이 싸움질을 하

림자를 감추어보겠다는것보다 어리석은 놀음은 없다. 《자유한국당》이 리명박, 박근혜의 그림자를 지어 버리고 마치고 《변화》와 《혁신》을 활것처럼 떠들지만 그것은 제명을 다 산 반역부리들의 궁여지책으로서 이기력사의 시궁창에 빠진 가련한 운명을 견질수 없다.

거론하는 놀음도 벌리었다. 바쁘면 고양이 발도 발린다고 닥치는대로 인물들을 끌어들이려고 하다보니 나중에는 당에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정치와는 인연이 없는 한 의학대학 교수에게까지 추가를 던졌다가 먼전까지 거결당하는 바람에 망신을 깨게 당한 《자유한국당》이다. 장의사를 청하여 장례를 치르고 처량한 장송곡속에 력사의 무덤에 영영 처박힐 신세에 그대도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질하는 《자유한국당》의 행태는 그야말로 눈 뜨고 차마 보지 못할 희비극이다.

호박에 줄이나 굶는다고 하여 수박이 될수 없다. 《자유한국당》이 썩은대로 썩어 구린내만 풍기는 호박과 같은 몸통에 《쇄신》과 《변화》, 《혁신》이라는 색감이나 바른다고 하여 청신한 수박의 냄새를 풍길리 만무하다. 《자유한국당》은 온갖 악취로 남조선인민들에게 더 이상 고통을 주지 말고 썩은 호박처럼 력사의 무덤속에 처박혀야 마땅하다.

본사기자 김응철

## 유네스코결정문이 보여주는것은

일본의 나가사키항에서 남서쪽으로 약 18km 떨어져있는 곳에 하시마라는 섬이 있다. 멀리서 보면 마치도 군함과 같이 《군함도》라고도 불리우는 이 섬은 지난 시기 전체가 탄광으로 되어있었다. 그 크기가 축구장 2개 합친것만 한 이 섬에는 지금도 해저탄광의 흔적이 력력히 남아있다. 바로 여기에서 지난날 일제에 의해 수백명의 조선사람들, 지어는 소년들까지 강제로 끌려와 마소처럼, 노예와 같이 일하다가 처참하게 목숨을 잃었다. 이런것으로 하여 《군함도》는 일제의 과거죄행을 증명하는 현장으로 되어왔다.

그런데 현 일본당국은 《군함도》에서 저지른 과거의 죄악을 묻어버리기 위해 섬을 관광지로 꾸려놓았고 2015년 7월에 아시아나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군대화의 상징》이라고 하면서 세계문화유산에 등록 하였다. 세계문화유산에 등록할 당시 일본은 과거 일본이 저지른 전대미문의 범죄고 통과 불행을 당한 아시아의 수많은 나라인민들을 기만하기 위해 해당시설에서의 강제로동과 관련한 전체 력사를 알리겠다고 국제기구

에 약속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말뿐이었고 일본이 한 행동은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 하였다.

2017년도 다 저물어가는 11월 일본은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제출한 《리행경과보고서》를 통해 국제기구와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집어 버렸다. 해당지역에서의 강제로동의 력사를 알리는 《정보센터》를 《군함도》가 위치한 나가사키가 아니라 도요에 연구소형태로 설치 하겠다고 하는가 하면 《강제로동》이란 표현도 삭제해버린것이 바로 그것이였다. 나아가서 일본은 《군함도》에 새로 설치한 안내판에서 《강제징용》이란 표현도 뽑아치우는 파렴치한짓도 서슴지 않았다.

속이 가마일곱보다 더 시꺼먼 일본만이 저지룰수 있는 추태를 두고 국제사회계와 많은 나라들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은 그야말로 력사에 대한 공정한 기록이 되어야 한다. 《특정 국가가 분당금을 리유로 정서적으로 리용할수 있는 대상이 되어서는 결코 안될 일이다.》며 일본이 국제사회앞에 한 약속을 지킬것을 요구하였다.

황금철

그런 속에서 얼마전 바레인에서 진행된 유네스코회의에서는 2015년 세계유산으로 등록된 일본 산업시설에서의 조선사람들에 대한 강제로동의 력사를 제대로 알릴것을 촉구하는 결정문을 전체 참가국들의 동의로 채택 하였다.

과거죄악을 회피하기 위해 교활하고 파렴치하게 놀아대던 일본에게 세계가 경종을 울린것이다.

지구상에는 지난 시기 일본과 같이 인류에게 해악을 저지른 나라들이 있다. 그러나 그 나라들은 일본처럼 철면피하게 행동하지 않았다. 지난 시기의 잘못에 대해 해당 나라들에 성근히 반성하고 사죄, 배상하고있으며 그러한 사업은 지금도 계속되고있다.

오직 일본만이 과거 저들이 저지른 죄악을 부정하고 회피하고있으며 미화분식하고있다. 지어는 일제의 범죄를 고발하는 심판장으로 력사에 남아있어야 할 장소마저 《군대화의 상징》이라는 외피를 씌워 본됨이로 리용하고있다. 파렴치하고 철면피한 일본당국의 속물적 근성에 세계인류는 침을 뱉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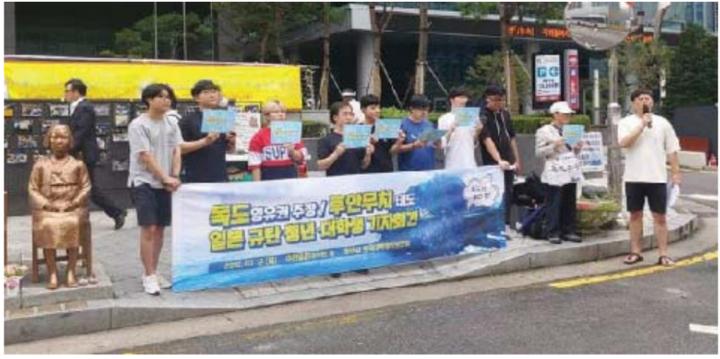
## 뻔뻔스러운 리명박역도의 범죄 부정 망동

남조선 《CBS》 방송에 의하면 리명박역도가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삼성그룹과 련관된 자기의 부정부패행위를 전면부정하며 철면피하게 높아왔다.

이자는 삼성에서 퇴물을 받았다는 혐의가 제기되자 《벼락맞을 일》이라고 아무재기를 쳤다 한다. 지어 자기를 삼성그룹과 련결시켜보려는것은 《오해》라며 아닌보살하였다.

리명박역도가 처남과 형

을 내세워 내은 다스희사의 돈을 자기것처럼 썼으며 회사의 소송비를 삼성그룹으로부터 받았다는것은 다스희사운영자들과 역도의 측근들, 퇴물을 준 삼성그룹관계자의 증언을 통해 이미 명백히 드러난 사실이다. 역지를 부린다고 하여 진실이 덮여지지 않는다. 역도의 뻔뻔스러운 추태를 보며 재판정에 있던 사람들은 아연실색하였다 한다. 본사기자



주소 : 평 양 통 일 신 보 사